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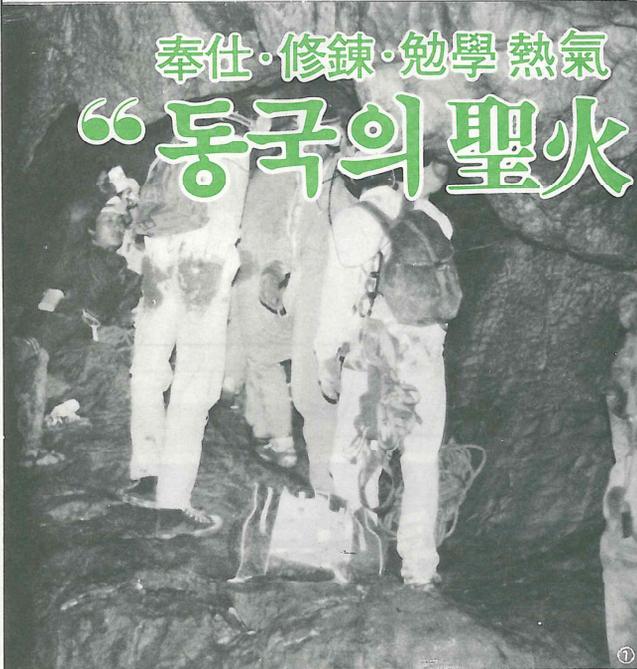
東友會報

발행인 鄭在祈
편집인 申申益
인쇄인 鄭九炫
편집부장 申興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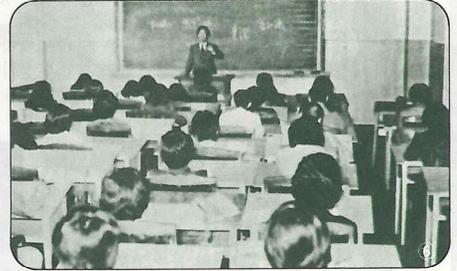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 (직) 267-8568 · 274-7449
(교) 267-8131~9 (465)

우편대체 :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1985年 8月 31日 第104號【1】



奉仕·修鍊·勉學熱氣 “동국의 聖火 높이 들렸다”



勇猛과 精進은 東國의 상징.
八正道의 깃발이 높이 솟았다.
지난 여름방학 모교 후배들은 강원도 횡성일대에서의 봉사활동 ⑤, 동굴탄취부의 '일본 원정탐험 ①, 동국문학회의 여름창작교실 ④, 운동부 원정경기 ③, ⑦, 야구부 한국대표로 한일대학야구 출전, 농구부 친선교류전 출전)를 통해 度世의 가치를 드높였으며, 모교 박물관 禪林院址 발굴조사단은 最古의 신라유물을 발굴 ②했고, 불벌 디위에도 성황을 이룬 여름특강 ⑥ 등은 모교 내일의 雄飛를 가늠게 했다.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

“선물준비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생일, 약혼식, 결혼식, 회갑연, 기념식 등 기타 연회석을 위한 선물준비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품위있는 신라명과 케이크가 당신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신라명과 케이크는 우리 입맛에 맞도록 잘 만들어졌으며 품위있는 색상과 장식등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만족하는 케이크의 예술입니다.

격조높은 모임이라면 언제나 신라명과케이크가 자리를 함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스페셜케이크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설당꽃, 설당학 등은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 집니다.

원하시는 때에 가까운 대리점에 연락주시면 곧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품 안내

● 실용과 품위의 포장선물
전병선물셋트 (땅콩, 해초, 송실), 마블케이크.

● 순수 식물성 생크림케익
딸기 생크림케이크, 복숭아 생크림케이크, 키위 생크림케이크, 메론 생크림케이크

● 커피향이 풍부한 **모카빵**

대표이사
홍 평 우
(70. 경영학)



新羅명과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200-1
(전화) (0343) 42-8036
소비자상담실 : 863-4040

● 신라명과 대리점

- | | | | | |
|---------------------------------|-----------------------|--------------------|---------------------|----------------------------|
| ● 샬비아.....233-3131 (교 410) | ● 서촌.....566-1848 | ● 청심.....568-5827 | ● 동방.....756-5287 | ● 대교.....783-1393 |
| ● 아질리아.....233-3131 (교 411) | ● 한양.....543-3224 | ● 압구정.....544-7830 | ● 중앙.....755-6094 | ● 삼성.....543-5539 |
| ● 신세계.....756-8597 | ● 여의도.....783-7059 | ● 종로.....267-1879 | ● 푸촌.....484-8862 | ● 과천.....502-9937 |
| ● 영등포신세계.....676-0931 | ● 고송.....422-1550 | ● 안암.....95-2226-7 | ● 개포.....462-4946 | ● 한양침실.....415-9595 |
| ● 대치.....556-5725 | ● 신반포.....591-7200 | ● 방배.....583-1800 | ● 상도.....813-8383 | ● 본백화점.....43-0171-9 (교53) |
| ● 한강.....793-3528-3486-797-8553 | ● 뉴코아 구관.....599-7408 | ● 영등.....542-5527 | ● 가락.....415-7304 | ● 파르코.....544-9709 |
| ● 현대.....543-9362 | ● 뉴코아 신관.....599-2640 | ● 호자.....723-2162 | ● 가림.....423-9684 | ● 이촌.....798-9600 |
| ● 단포.....599-4700 | ● 합남.....794-9300 | ● 신서.....543-1108 | ● 불광.....388-5332 | |
| ● 산호.....599-9604 | ● 신촌 (A).....323-8717 | ● 미도.....554-4554 | ● 구랑프리.....568-3421 | |
| ● 잠실.....424-2257-413-9813 | ● 신촌 (B).....322-4555 | ● 워커힐.....444-8556 | ● 삼익.....412-8795 | |

『나의 東國』에 誠意와 동참을

회비납부 부진 아르바이트生 방문收納키로

- ◇...본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회비수납에 적극성을 띠어 동창회의
- ◇...지속적인 발전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교에 재학중인 유배들을 선별, 아
- ◇...르바이트용역을 주어 회비 收納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들어 본회는 東友
- ◇...會報를 증면·증부하는등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으나 1만5천부에 일일이 지로
- ◇...용지를 산입해 동료들에 우송 이를 통해 접수되는 회비는 년간 약5백명 분의
- ◇...로 30분의 1정도에 불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現行 지로·우편대체制 병행

이런에 실시할 아르바이트생 방문수납은 본회의 적은인원으로 일일이 동문여러분을 방문할수 없는 점을 감안, 부득이 결정한 일인데 82년의 경험에 비추어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반면 진중 생필지 모르는 부차 용에 대해서는 동문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기대된다.

총정의 우편대체(012328-31-525669)와 은행지로(7500891) 이용은 그대로 병용, 지부 및 회들의 단체회비 조기납부도 집실히 요망된다.

민은 언제나 그 대안을 실행하기위한 실무집행과정에서 뒷받침 되어야할 사업재원의 부족에서 시작되곤한다. 사업재원의 기본은두말할것 없이회비.

이미 오래전부터 매년 그해 그해를 「동창회 기금확보의해」로 정하고 각종 회비납부제의 정착화를 꾀꾸 추진했으나 그 효과는 사실상 극히 저조. 현재 정도의 재정으로는 東友會 報제작 우송, 慶弔事참여, 사무국 운영, 東國의발등 각종행 사추진도 힘에 겨운 실정이고 장학사업이나 동문공제의 운영 기틀과 동정회관 건립은 요원

「80년 전통의 그 많은 영광을 누려온 우리 東國이 오늘날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는 그저 한때의 臥龍으로 애써 변명하고 말 것인가? 「상연 웅비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설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일찌기 부활한 사령관으로 우리의 東國」에 뛰어들어, 사람이 있었는가?」

本會 사무국이라고 이 많은 「東國인의 소리」를 모를리없고, 사실 수많은 뜻있는 동문들이 개관하고 자승하고 대안을 제시해 올 때마다 本會의 고

東友漫評 鄭雲耕



山岳會 월례산행 매월 세째일요일

東國山岳會(회장=鄭鎮承)가 지난 6월부터 주관해오고 있는 月例산악회의 세번째 산행이 8월18일 북한산에서 있었다.

제1회 평지산, 제2회 도봉산에 이르는 이번 월례산악회는 90여 동문들이 참가하여 참가해 심심단련과 동문결속의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의 대상은 순 동국인이며 매월 세째 일요일 오

79년창립매달모여

경제과 02년 졸업생 동창모임 [東友會]가 지난 79년 11월 창립회 졸업 환반한 활동을 지속하고있음이 파악됐다.

同會는 康明彦동문을 회장으로 매달 셋째주 금요일에 모여 東友愛를 나누고 있는데, 지

79년창립매달모여

난해 6월에는 회원들의 노후를 생각해 그간에 모아둔 회원들의 회비로 주문진 해수욕장 주변에 땅178평을 공동매입, 편리하고 있을 정도도의원은 11명까지진 소수정예의강점을 과시하고 있다. 연락처는 총무 鄭明得동문(602)2350.

한계 현실이어서 금년의 아르바이트방문 접수의 성공은 필수불가결하다.

상반기 동안 본회에 접수된 각종회비의 그 대략적인 실적을 보면 연회비는 연복표액 1천3백만원에 2백만원정도의이 이사회비는 1천5백만원 목표에 3백만원, 상무이사회비는 1천2백만원 목표에 50만원 정도로 계획에 크게 모자라 원할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年會費는 1만원, 영구회비는 10년분에 해당되는 10만원을 납부하면 영구히 연회비가 면제되고 임원급은 상무이사 20만원, 이사 5만원씩을 납입하게 되어있다.

經濟科 62년同期會 파악

70周장학금 전달식 「東國70주년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29일 오전11시 光光廳 학생처장을 비롯, 申益煥본회사무국장, 수혜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학생처장실에서 있었다.

모교의 대학원및 行政·總務 敎育대학원등 4개대학원의「84학년도 후기 碩·博+학위수여식」이 지난31일 오전11시 黃壽永총장, 李龍範대학원장, 尹鎔均행정대학원 동문회장 本會임원등 내외인사를 비롯 1천5백여명이참석한 가운데 모교중앙강당에서행되었다.

상기례로 시작될 이날 학위수여식은 李龍範대학원장의국민교육헌장 낭독, 화사보고, 碩·博+학위수여, 총장식사 본회의장 축사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黃壽永장은 式辭를 통해 「인간을 하나의 사물로 판단하려는 오늘날의 비극적 상황



吳綠園 이사장 취임

“의대설립 총력”

학교법인 동국학원 제14대 이사장吳仁甲(綠園)의 취임식이 28일 오후 6시 黃壽永모교총장을 비롯 鄭在慶전총장등 총·재단·교육계 인사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淸州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있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

원장을 맡고 있기도한 吳이사장은 7·12·13대이사장을 지낸 朴道宗스님의 와병으로 지난 1월14일부터 직무를 대행해오다 이사회의 정식추대 절차를 통해 지난 7월6일 被選, 취임했는데 승인을 거쳐 이날 취임했는데 취임사를 통해 「모든 동국인은 교세확장을 위해 의대 설립에 총력하자」고 밝혔다.

모교 各대학원 學位수여식

석·박사 1백58명 탄생해

모교의 대학원및 行政·總務 敎育대학원등 4개대학원의「84학년도 후기 碩·博+학위수여식」이 지난31일 오전11시 黃壽永총장, 李龍範대학원장, 尹鎔均행정대학원 동문회장 本會임원등 내외인사를 비롯 1천5백여명이참석한 가운데 모교중앙강당에서행되었다.

상기례로 시작될 이날 학위수여식은 李龍範대학원장의국민교육헌장 낭독, 화사보고, 碩·博+학위수여, 총장식사 본회의장 축사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黃壽永장은 式辭를 통해 「인간을 하나의 사물로 판단하려는 오늘날의 비극적 상황

를 극복해야 한다」며 「여러분의 학문적업적은 개인의 발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체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여 더욱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鄭在慶前회장은 축사(尹鎔均행정대학원동문회장 대독)에서 「이 시의 이느브이에 서든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 줄것」을 당부, 격려했다.

이날 학위수위자는 대학원석사 45명, 행정대학원석사 35명, 경영대학원석사 30명, 교육대학원석사 26명, 대학원석사 22명 등 모두 1백58명이다. <박사 학위 순위자 명단 9면>

國史科·대구漢醫科 창립

慶州캠퍼스 동문회 胎動

慶州캠퍼스 국사학과 동창회(회장=田萬成)와 漢醫學科 大邱동문회(회장=李奎文)가 창립됐다.

(慶州캠퍼스) 동회는 지난 8월 25일 경주캠퍼스 인문사회학관 소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田萬成(83)동문, 총무에 朴世緒(85)동문, 부회장은 金炳3호씨으로 하는 임원진을 결성했다.

이날 창립은 뜻있는 동문 80여명의 발기로 이루어졌었는데

총회장에는 최효식, 김세규교수 등 30여명이 참석.

대구 동문회는 「한외과」 금년 첫 졸업생 9명으로 구성, 지난 4월25일 졸업한탄 만에 창립, 발족되었는데 1기생들이 잘물쳐 모범을 보여야 앞으로 도 발전다」는 공동인식아래 매달 두번째 금요일 모임을 갖고 東友愛를 나누고 있다.

同會는 이제 결을마를 시작 한 新生동문회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회비 1인당 2만원씩을 저금, 후배를 위해 장학금운을 계획하는 한편, 이미 지난 1학기에 장학금으로 50만원을 내놓기도 했으며 5월30일 있었던 同科 재학생체육대회에 20만원을 보조하기도 했을 정도로 굳은 결속과 뜨거운 모교애를 보이고 있는데 同會 金敬東총무는 『한외과 전체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傳言. (회원명단은 10면 참조)

大邱회장단 모임

金東鎮판사등 송별경해

大邱支部(회장=全人星)는 8월29일 金東鎮(78 法學) 판사 송별회및 金東鎮(61 법학) 李裕寬(66·국문) 강두식(66 경역) 동문 환송회를 회장단모임을 겸해 가람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송회장및 朴道植(62 정치) 하영태, 홍기익 부회장, 姜義遠(49 文學) 교문, 吳남수 감사, 金相煥(70 정치) 총무, 權鍾奇(71 농학) 부총무 등이 참석했는데, 金東鎮판사는 9월1일자로 대구지법에서 집정원으로서 임명을 받았다.

재단본회파견감사 曹重根 동문연임대

모교 재단교법법인 東國學 院」본회파견감사에 曹重根(65 삼학) 동문이 연임됐다.

본회사무국 人事 申興來총무 부임

본회사무국 총무장 東友會 報 편집부장을 맡아온 曹萬洪(84국문) 동문이 사임함에 따라 후임에 이 文藝誌「韓國文學」에 재직해온 申興來(85국문) 동문이 8월26일자로 부임했다.

총무원 人事서 세동문 轉任 연수국장 三智·수석비서 德基스님

지난달 있었던 총무원 인사에서 권연성(봉교·三智스님) 李根會(75行研·德基스님), 이자남(行研·慈航) 동문이 포교원 연수국장, 총무원장 비서실 수석비서에 각각 임명됐다.

三智스님은 모교 졸업후 감찰원 감찰국장, 규정부 조서국장 등을 지냈으며 德基스님은 법어서 부교전통감찰원을 수로, 慈航스님은 9교구본사교무국장을 역임했다.

"가정과 직장의 완벽한 동반자... 「東國人만세」위해 모두 애써야죠..



<20>

夫婦 동문

◇南慶元

(73시공·팔복상사 대표)

◇鄭惠淑

(74과교)

학창시절 4년연애

『지금도 대구지부 동문모임에서 저희 가족을 소개할 때 "하라는 공부는 하지않고 연애만 하던 南慶元동문 가족"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은 속스럽기도 해요』

동문 부부로 소개되는 것이 속스럽기만 하다고 서두를 꺼내는 南慶元동문, 옆에 앉아서 소를 떠 채 다정한 눈길을 보내고 있는 鄭惠淑동문.

南慶元동문 부부의 화기에찬 모습에서 풍겨나오는 인상은 단순한 속스러움이라기보다는 자랑스럽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이른바 동문부부로서의 긍지가 배어 있는 듯한 느낌이다.

『저희가 처음 만난게 70년 여름방학 때였죠. 그때 같이갔었던 농촌봉사활동에서 맺어진 인연으로 학창시절을 함께하면서 결혼까지하는 사이가 됐어요』

마치 소중한 물건이라도 다루듯이 온온한 목소리로 동문 부부가 되기까지의 경위(?)를 얘기하는 鄭동문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70년, 2학년에 복학한 南동문은 그해 농촌봉사활동이 계기가 돼 만나게된 鄭동문과 74년 결혼을 할때까지 '순 흰번

못 잡아 보았다'고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불만 아닌 불만을 터뜨리며 웃는다.

서로가 겹치는 빈 강의시간마다 동유럽이나 석조과 주변에서 자주 만났었는데, 처음엔 플라토닉한 감정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화를 나누다보니 정이 들어 '자식에 끌리듯' 자연스런 만남이 계속되게 되었다고 한다.

학창시절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약산공원 등

원래 南동문의 고향은 인천이고 鄭동문은 서울토박이였는데 南동문의 첫직장이 대구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살아온 대구가 제2의 고향이 된 것이었다.

『오랜기간 대구에 있다보니 이런 완전한 대구사람이 되어 버렸고, 남 못지 않게 대구를 좋아하게 되었다』며, 단지 어렵다던 본의아니게 시집과 친정을 떠나서 오묘한 대구생활을 하게 된 것이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다. 또한 가까웠던 동문들과도 별

농촌봉사 인연... 1남1녀



으로 산책을 할 때면 그때의 싱그러웠던 감정이 생생하게 되 살아난다고.

부부싸움해봤으면

『차라리 동문이 아니어서 학교자랑 같은 것으로라도 부부싸움 좀 해봤으면 좋겠다』며 원임부부로서 은색없음을 과시한다.

대구시 수성구 신내동 589의 19호.

이곳이 南慶元동문 부부가 아들 기범(11세)과 딸 연숙(9세)과 함께 단란한 가정생활을 일구고 있는 보금자리.

어저 지내다 보니 소원해졌다며 혹시 대구를 들르는 동문들이 있으면 소식을 바란다고 부탁한다.

현재 南동문은 대구에서 팔복상사라는 식품업체를 경영하고 있다. 열지바섯·현미효소등 건강식품 제조와 개량메주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건강식품을 개발하여 국민보건생활에 이바지하겠다는 장래 계획을 펼친다.

건강식품개발전력

식품공학과를 졸업한후 경영



支部消息

加지부定總, 임원 改選

모서기금등 \$800 보내와

회장에 金國助 동문

캐나다동문회(회관 龍水樓)는 지난 3월16일 오후 7시 투로트華人會館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에 金國助(63 경제) 동문을 선출하는 등 임원개선을 하고 계속적인 회

- ▲회장=金國助 (63 경제)
- ▲부회장=이규영 (63 상과)
- ▲총무=이영호 (71 불교)

대邱테니스대회 具敦贊·金東鎭등 우승

東友테니스회월례대회(회장=홍기익)가 지난 8월28일 동대邱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具敦贊(64·법학) 金東鎭(78·법학) 동문이 차지했다.

- ▲준우승=金在洪 (71 정의) 徐誠均 (73 화학)
- ▲미기상=金相俊 (70 정의) 權寧穆 (70 상학)
- ▲미기상=南慶元 (73 시공) 林洛允 (76 행정)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못 받아 보시는 동문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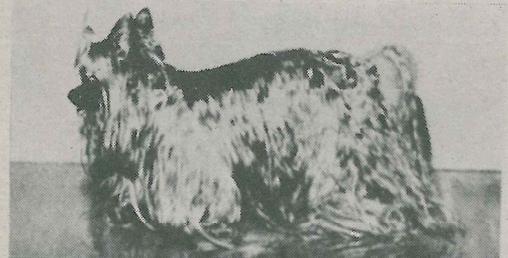
- ▲金明浩 (57경제)=종로구내 자동201-11 (주) 불로인삼 대표이사
- ▲趙昌元 (57경제)=강진인쇄사대표 (275) 6131
- ▲閔丙徵 (59경제)=K O T R A감사 (725) 2041
- ▲崔學和 (60경제)=오창지방해운항만청장
- ▲沈甲植 (62경제)=농협중앙회 검사부차장
- ▲文光泰 (69경제)=국민상호신용금고 신사동지점차장(546)

- 5091-5
- ▲吳在官 (71농경)=2810 Fishpond LN Killen Texas 76541. (817) 526-2761
- ▲金壯謙 (72경제)=대립산업(주) 중기사업소 관리부 자재과장 평택 (2) 7101
- ▲陳光男 (72경제)=서울민사지법 민사신청 1과 (725) 8217
- ▲柳春植 (73경제)=송구 북창동20-5 고려상사대표
- ▲孫采亨동문=수성구 수성3가 209-18 세종한의원

대학원에서 시장관리를 전공한 南동문과 과학교육을 전공한 鄭동문은 가정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동반자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동문부부.

『델레비전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동문들의 활약을 접하게 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대화단국의 세심한 배려와 후배들의 건투로 명

최신! 임버스 이견기



대한가축원

- 외국 수입견 취급관리
- 각종견 증견 보유 (최대 증견 확보)
- 각종 견구 취급 (미용재료, 약제사리등)
- 애원견분양·교환사육상담 (부업상담)
- 신용·친절·봉사

서울시 중구 충무로 5가 73-2
(TEL) 266-0731·267-0195
(자택) 265-8351·272-9946
대표 서영진 (61·경제)

대통령특사로 阿洲순방

鄭在哲회장 귀국

鄭在哲 本會회장 (정무제 1 장관·국회의원)은 지난 8월12일부터 27일까지 대통령특사로 자리에, 시에라리온등 서부아프리카 제국을 순방, 대통령의 친서를 방문국 국가원수들에게 전달하고, 유엔총회와 비동맹회의에서의 한국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阿洲과 아프리카 제국과의 南南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귀국했다.



崔炯佑·金東英·愼順範 동문 新民黨職 개편서 요직맡아

8월초 있었던 新民黨 전당대회·당직개편에서 本會이사 崔炯佑(63정치)·金東英(60정치)·愼順範(62정치) 동문이 부총재·원내총무·수석부총무에 각각 당선·유일했다.

공인하는 탁월한 조직력을 심분 발휘, 8대 국회부터 정계에 진출, 3선의임을 지냈으나 지금은 院外. 솔직·담백하고 적극적인 성품이어서 언제나 金泳三씨의 전방사단장 역할을 맡고 있는 전열적 野將.

金東英 원내총무

앞서 소개한 대로 金永三氏의 측근중의 축근. 崔炯佑·張明秀, 두동문의 낙선에 따라 장담당시 上道원계에서 막대한책임을 맡아 12대 開院과 함께 원내총무로 누부신 활약을 보였고 그 능력이 인정돼 이번이 다시 유입된다.

경남 眉眉출신의 3선(9·10·12대)의원으로 67년부터 72년까지는 우석대와 고려대 학단에 있었으나 73년부터 정계에 투신, 구 新民黨시절 사무차장, 정무위원 경남도당위원장을 지냈다. 국회 동우회 회장.

愼順範 수석부총무

정지에 뜻을 둔후 25년에 걸친 온갖 역경을 이겨낸 七願八起 화제의 주인공. 11대대의 정동우회 부총무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다 12대에 신신임에 입각 開院초부터 수석부총무로 활약해왔다. 남부국회회담이 열리면서 한국측 대표에 임명돼 7월23일 판문점 제1차 예비접촉에 참석했다. 민주화연선 농수산문제 특별위원회의위원을 지냈다.

표) 동문은 지난 8월1일 上順시외버스 터미널을 준공, 9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白동문은 文泰植(49정치) 본회 부회장이 회장으로있는 바주산업 그룹의 전무이사를 역임했는데 총65억원을 투입 지난 83년, 동대문구 상봉동83-1에 착공, 2년만에 완공된터미널은 총부지 1만1천여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조현대식 건물. 漢水이북 지방으로 운행하는 마장동 출발 1백14개 노선과 미아리터미널출발 6개 노선을 총1백20개노선 5백21개의 시외버스를 흡수, 하루 2만여명의 승객을수송하게되어 도시교통체증을 크게 완화하게 된다.

서울시 올림픽 준비단장 姜炳壽 동문



57년 공무원 사무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姜동문은 구청장·공무원교육원장·산업경제국장·재무국장등을 맡아 오다 이번에 서울시올림픽준비단장의 요직을맡게 된다.

姜동문은 현재 본회 이사로도 활약중.

韓國哲學會 부회장 金鎔貞 동문



모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金鎔貞(59 철학) 동문이 최근 韓國哲學會 부회장에 선출됐다.

金동문은 모교 문화대학장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모교살림의 중앙부를 맡고 있으며 내년 5월 8일 80주년 기념일에 발간될 『東國80年史』의 편찬위원장으로도 활약중.

「여름 민요 마당」 열어 申庚林 동문

申庚林(59영문·시인·미요연 구회 회장) 동문은 7월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신촌 「우리마당」에서 여름민요마당을 열었다.

56년 「文學藝術」로 등단한 申庚林 동문은 제 8회 한국문학자상 등을 수상했으며, 「蹠脚」 「새재」 「마침내 시인이여」 등의 여러 시집을 낸 바 있는 중진詩人.

소멸폐가는 우리 민요의 발굴과 재창조작업을 위해 84년에 발족된 민요연구회는 문화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중문화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모임이다.

모교 學生處 부처장 羅彦杓 동문



羅彦杓(59경제) 동문은 모교 학생처 부처장에 임명됐다. 羅 동문은 80년 10월 체육부장에 부임, 83, 84년 야구부를 연속우승에

올려놓는등 모교 운동부를 정상까지 이끌어 올성파로 방송국(DUBS) 국장을역임했다. 본회 이사로도 활약중.

大韓投資金融 사장 영진 李鍾萬 동문

李鍾萬(53경제) 동문이 大韓投資金融(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영진했다.

李동문은 30여년간 조흥은행에 재직하면서 일선 지점장과 영업부장·상무이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후 지난 82년에 大韓投資金融 부사장으로 취임한 정동금융인이다.

자상하면서도 호반한 성격으로 매사를 분명히 처리하고, 특히 업무추진력이 강하다는 점으로 금융계에 알려진 중진이다.

전문직업 女性클럽 會長 張都松 동문



張都松(85大院) 동문은 최근에 열린 전문직업 여성클럽 한국연맹 창립총회에서 총회장으로 회장으로서 재선출됐다.

조흥은행 침과동지점장으로 활동중인 張동문은 지난해 인사발령시 韓國總회의 여성지점장으로 발령되어 사외의 주목을 받았으며,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으로도 활동중.

光明동정

이 위
본인의
近況이나
주
동문들의
近況이나
주
동문들의
近況이나
주

東大新聞 主幹취임 金容喆 동문



金容喆(60정치) 동문은 소설가·교수·기자·동문이도고 東大新聞社 제11대 주幹에 취임했다.

金 동문은 東大附屬 재직당시인 77년 吳永壽표의 사사로 「現代文學」 주천을 통해, 作品集으로 「겨울꽃」이 있는데, 80년 모교 신문사 편집국장을 거쳐 학생생활과에서 근무해왔다.

榮進轉補

봉천지점장 鄭在栢 동문

▲鄭在栢(54법학) 동문은 봉천지점장으로 전임. 60년 入行 속초·해화동·춘천지점장등을 역임했다.

부평지점장 金斗杓 동문

▲金斗杓(57경학) 동문은 천안지점에서 부평지점장으로 전임.

보문지점장 金勳植 동문

▲金勳植(58경제) 동문은 양재동지점장에서 보문동지점장으로 전임.

신길동지점장 薛鐸東 동문

▲薛鐸(58경학) 동문은 부산남부지점에서 신길동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薛동문은 영주·김동·광주·인천지점장·영업부 부부장등을 거쳐왔다.

돈암지점장 金世永 동문

▲金世永(59경제) 동문은 세검정지점에서 돈암동지점장으로 전임.

신촌지점장 李在寧 동문

▲李在寧(62경학) 동문은 신촌지점에서 신촌지점장으로 전임. 지난 70년 업무부처에서 지점장으로 승진 安東·月谷·갈현동지점장등을 역임해 왔다.

용산지점장 崔俊鎬 동문

▲崔俊鎬(63경학) 동문은 상도동지점에서 용산지점장으로 전임. 졸업후 入行, 그간 제주·인양동·정림리·광주지점장등을 역임해 왔다.

▲지면관계로 동문동정을 모두 실어드리지 못할을 양해바랍니다.



崔炳佑



金東英



愼順範

崔炯佑 부총재

崔炯佑 동문은 세간에는 「左東英右炯佑」로 통칭되도록 金東英 동문과 함께 金泳三씨가 아끼는 1급참모. 모교 재학생들이 아양에 몸담은 이래 自他가

별자리에 「아플러」 등록 徐京保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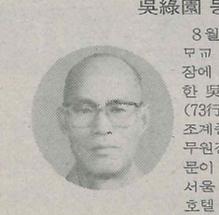
徐京保(51법교) 동문이 韓國에서 처음으로 「아플러」로 별자리에 명명 등록됐다.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을 별세계에 등록시키고 있는 국제별세계등록회에서는 최근徐 동문을 아플러 별자리에 등록시키고 등록증을 전달했다.

캐나다와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同회는 힌·일본교대회에 참석한 미국교대 태드호르웨이 스님을 통해 등록증을 전달했는데, 아플러는 큰 봉새라니 뜻으로徐 동문의 별호 「一鵬」과도 같다.

아플러 별자리는 「인수 동북쪽에 위치하고있는 큰별자리로 여름철에 북반구에서 밝게

韓日불교...대표취임 吳絳園 동문



8월26일 두류 이사장에 취임한 吳絳園(73학院·조계종 총무원장) 동문이 최근 서울관광호텔에서 열린 韓·日불교 문화교류회에서 한국대표로 취임했다.

吳絳園 스님은 88년 모교 재단사장을 역임했으며, 수자에 걸친 모교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緣園文學賞」을 제정 운영하는등 모교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여를 해오고 있다. 6차 한·일교류대회는 9월중 산산사에서 열린다.

상봉터미널 준공 白文基 동문

白文基·(63법학·株)新亞洲대

83, 84년 야구부를 연속우승에

디트로이트→시카고→샌프란시스코 →LA

또사건...메모장 분실

개그런 버스 (그레이하운드) 를 타고 6시간을 달리는동안 또 기억해 풀만한 사건이 생겼다.

이때곤 동문 (디트로이트) 의 배웅을 받고 디트로이트를 떠나 시카고의 동생에게 고수터미날로 마중과 달리는 전화틀러후 메모장을 그대로 공중전화대 옆에 놔두고 온 것이다.

서울을 출발해서 지금까지의 모든것을 메모하고 동문들의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한 메모장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6시간동안의 버스여행은 기억 재생의 피나는(?) 노력일 수밖에 없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해 낼수 없었지만 눈을 감고 서울서부터 다시 출발해 그간의 모든 행복과 만남시점들, 그리고 오가 이야기들을 기억해내기가 시작하며 다시 메모해나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필요한 전화번호와 주소는 시카고에서 장거리 전화에 의해 다시 찾았)

이러는 동안 잠장 6시간의 버스여행은 간단하게 끝났고 자정이 되어서는 시카고 대합실에서 마중나와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만나며 시간을 초월한 완벽한 여행을 했던 것이다.

<6월22일 시카고 이화장 오후 7시>

시카고 동문회 모임에 참석하였다.

윤용모, 광범희, 이장수, 이인호, 문영남, 남병국, 홍중순, 김만전, 강대환등 여러 동문의 반가운 환영을 받으며 동창회가 시작되었다. 약 50여명의 동창이 거주하고 있는 시카고 동문회에는 매달 정기모임과 주기적인 골프모임으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전 회원들은 골프배우기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하는데 이는 디트로이트 동문회에서도 환아했던 동창회 조직의 제갈공명 광범희 동문의 힘이 컸다고한다.

배사에 조심스럽고 완벽한 광범희 동문의(?)로 식당 지배인으로부터 고급 샴페인을 제공받기도 하며 밤늦도록 시

카고동문회의 화기에 한웃음소리는 써어뜨린 위로위로 퍼져나갔다.

시카고를 떠나 샌프란시스코

졌지」하는 마음으로 문제점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행동을 계획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중나와 하연준 동문과 그곳에서 열일 등문회참석에 차질이 있는것이었는데, 장거리 전학로 상황을 설명하여 연기하고, 이미 나보다 먼저 출발해 버린 집에는 별

기는 곳같은 분위기였고 오랜만에 진토니 몇잔으로 여행의 피로를 씻게 되었다.

다음날 하연준 동문이 경영하는 카페에서 대기 중업원(?)으로 시간을 메우고 오후엔 시내관광을 갖게 되었는데 영화, 사진, 말로만 듣던 금문교에도 착하여 내가 미국에 왔구나 하

식사를 나누며 로스앤젤리스 동문회의 근황을 들으며 서운한 생각이 들게되었다.

로스앤젤리스 동문회가 잘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인원이 많아 잘 모인다고 들었는데...약 300명 이상의 동문이 살고있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다보니 지역 별로 모이고있는 것같았다.

그러나 밝은 희망을 갖고 돌아오게 된것은 최동수 현 회장과 임향근 동문, 또 장진건 최경선 동문이 합심체제로 금년말에 LA 동국인의 밤을 주선하여 알차고 단결된 동문회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다짐을 듣고 희망찬 LA 동문회의 앞날을 기원했다.

그동안 각지역 동문회에서 년말에 동국인의 밤을 성대히 가져오고 있었다.

뉴욕에서는 他 동문회는 꿈도 꾸지 못한 플레이보이 하우스를 전세하여 동국인의 밤을 가졌고 디트로이트는 각종 상품을 행운상품으로 내놓아 부부 동반으로 각자의 결수를 다집해 왔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본회에서 특산품으로 내놓는 14인치 칼라 TV정도는 3등으로 2대씩 내놓을 정도의 대단한 상품을 자랑하는 동국인의 밤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역시 동국인의 긍지를 잃지 않고 있구나 하는 흐릿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북미주지역 동문회를 다녀오며 가장 가슴 아픈일은 캐나다 동문회를 가보지 못하여 죄송하며 아쉬운 뿐이다.

배달한 일정속에서 운전이다 보니 캐나다 입국 비자를 발급 받지 못했고 아버님의 병환으로 인해 시간적으로 맞지 못했음을 기행문을 통해 다시 사과드리며 아쉬움을 남긴다.

칠월사일, 미국독립기념일을마지마므로 한번 넓은 공인하늘엔 불꽃이 튀었고 동네 구석 구석 마다 화약냄새 영기는 축하행렬속에 이국의 추억을 남기며 서울행노스웨스트에 몸을 싣고 또다시 에어콘냉기와 싸움을 계속하며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집을 떠난지 몇년이 지났지만 같은 착각에 빠지려 할때 『아빠!』하며 달려오는 동흔이와 지영이를 번쩍 안아 올릴때 내방에 발디딘 실감이 살아났다.

이번 여행에 도움을 주신 여러 부회장님들 동문들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與東友交』는 영원하리

申益炫국장 美州 순방기 (下)

로가기위해 새벽부터 서둘러서 미드웨이 공항으로 출발하여 공항로비에서 아비님, 동생과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실수연발, 비행기 놓쳐

그러나, 문제는 또 뜻밖의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내 미국여행중 가장 큰 실수요,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시카고발 미네아폴리스 경우 샌프란시스코 비행기표를 확인하고 짐을 실었던것까지는 정확했던 것같

중요한것이 없었음뿐아니라 『설마 미국인들이 내 짐 때 먹으라』생각하니 당황할 이유가없어지고 말았다.

드디어 노스웨스트 직원과 손짓 발짓 대화로 가까스로 타사 비행기를 바꿔타고 미네아폴리스에서 막 출발하기 직전, 내가 본래 타이했던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정확히 도착에 도착하니 반가운 열렬 하연준(샌프란시스코부회장) 동문이 두손뼉치고 마중하고 있었다.

<6월28일 샌프란시스코 청기와식당 오후 7시>

김후길(회장), 하연준, 한양수, 이석우(총무), 정주현, 강진수, 백춘옥, 최문규 동문등의환영을받

는 실감을 갖게 되었고 본회 명예회장이신 최재주회장님께서 두 분으로 방문시 쪼쪼 부한(빚물을 구하지 못했다고함)

기념 촬영을 할때 감격적이었다고 할까? 추억적인 미학을 떠날때 비행기가 연발하는 두시간 동안이나 말 통주하며 떠날때까지 옆에 있어준 하연준 최문규 동문에 감사를 드리며 노래를 선사한다. 『아이 레프트 마이 할, 인 샌프란시스코...』

<6월29일 LA>

계속 해변을 끼고 날아온 비행기는 크리스마스츄리를 넣어 놓은듯이 반짝거리는 로스앤젤리스 상공에 도착하였다.

『아-정말 아름답구나』동화속에 나오는 별나라같은 오색 불빛을 가르며 비행기는 사뭇히 활주로를 닿았고 탑승객들은 기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미국인들은 비행기가 착륙을

캐나다 동문회에 죄송함과 아쉬움 겹쳐...가는 곳곳마다 東國人の 긍지를 잃지않고 살아가고 있는 동문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기도

다. 탑승시간이 충분할것 같아 공중전화대에 앉아 시카고 등 문회회장이하 여러분에게 출발 인사를 드리고 여유있게 출구로 나가보니 내가 탈 비행기는 30분전에 이미 출국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바로 1시간을 착오했던 것이다.

으며 구수한원장짜반으로고향생각에 젖으며 동창회를 마친후 2차파티로 가러려중 한양수동문 강관수동문의 차가 연달아 연쇄적 고장을 일으켜 수리작업에 시간을 소비하여 간단히근처의 야크스라는 디스코 택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흡사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이 즐

마치면 무사히 비행해준 기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7월1일 오후 7시 우래옥 LA 지점>

최동우 (회장) 임향근 장진건 최동수 김학순등 여러 동문과 밤화를 맞아 미주에 드린시경 상대 조영기회장 부처와 같이

동국인 모습 보존의 전당

사진 예술원

모든 동국가족에게 특별 할인 봉사!

·인상사진 촬영

(여권사진 포함)

·기념사진 촬영

(가족, 결혼, 회갑)

·각종 기념행사 출장

(동창회, 직장, 개인)



·VTR 제작

·상업용 사진촬영

·졸업앨범 제작

代表 : 宋 進 (76 工經)

5. 「國大案」 반대소동

<공산당>은, 그들이 「혁명
의 기본 준칙」으로 보는 노
동자 동맹뿐만 아니라 도시소
시인, 인테레의 學團안에 까지
徹頭徹尾를 강조해 갔다.
저층에는 敎養을 세포만
있던 것을 학생층에까지 전국
적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학
교에 敎세포가 부식되었다.
이들 학원안에 조직된 당
세포는 공산당의 指令에 따라
暇休를 비롯한 각종 學團소동
을 전개했다. 그중 가장 규모
가 컸던것이 國大案反對 소
동이었다. 이 소동은 1946년
8월 2일 發표된 美軍政法令
102호가 도화선이 되었다.

이 102호는 「國立서울大學校
創設에 관한 法令」으로서 京
城大學 經濟專門學校를 비롯 치
과, 의과, 관산, 공업, 농업등 전
문학교와 정심 남녀사범학교를
축립 서울대학교로 흡수하여 이
대학교에 농과, 산과, 치과, 사
범, 공과, 예술, 법과, 의과, 문
리대및 대학원을 설치한다는것
과 大學校 理事會를 軍政이
맡게하고 文敎部長 (美國人 및
韓國人)을 비롯한 내부 간부
들로 구성한다는 것이 이 골자
대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法案에 대해 당시일
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
했다.
「이 法案이 實施되면 大學
운영은 官僚들의 손에서 독단
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 美軍政
의 學團에 대한 직접적인 간
섭이 심해져 우려가 있으니 그
보다는 國大案을 철회하고 京
城大學을 綜合大學으로 확장시
키고 각 單科大學은 각각 독
자성을 발휘하도록 하는것이 좋
을 것이다」

그러나 美軍政은 일부러론을
부시하고 법령 102호를 실천
에 옮겼다. 46년 9월에 국립서
울대학교가 발족되자 그산하의
商科大學, 工科大學, 師大및 대
학에 등의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맹휴를 들어 갔다. 이
파동으로 商大, 法大, 文理大는
「休學」을 받게 되었으며, 9
월 5일 서울대학 理工學部 교
직원 38명도 총사직을 결의했
다.

학생들은 美國人 총장의 사
퇴, 민간인理事와 韓人總長 임
명, 학원자치 인정등의 요구조
건을 내 걸고 맹휴에 들어가
고 나왔다.

당시 「공산당」 계열은 美軍政
이 모든 정체를 점령으로 반
대하는 전술로 비추었기 때문
에 「國大案 반대운동」을 절호
의 기회로 이용하여, 특히 공
산당이 계획한 「9월 총파업
투쟁」과도 결부시키려 했다.

그러하여 내가 속해있던 左
翼學生團體인 「學生統一促進會」
(學統)와 각 學校에 조직되
어 있는 黨細胞조직들로 하
여금 「國大案 反對투쟁」을 대
내적으로 전개할것을 지시했다.
이 소동은 47년에 접어들면
서 본격화 되었다. 一般私立大

學과 中學校에 이르기까지 파
급되었다. 우리 東國大學에서도
운동이 시작됐다.
내가 입학했을때는 두개좌로
학생 2백명 미만이었다. 19
46년 9월 東國大學으로 승격과
동시에 學部, 야간부까지 두었
으니 학생수가 1천명을 넘어
섰다. 내가 惠化전문에 입학할
때는 서울에 전방학교가 몇개고
뿐이었으나 1946년 9월경에는
20여개나 되었다. 이들 학교중

그들이 갖고은 서류에는 우리
東國의 이름도 있었다.
2월 2일 開學후 2월 3일 學生
총회를 열고 동맹휴학으로 불
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에 참석한 우리는 다른 의견
도 있었다.
「서울대학교에 포획된 學生이
아직 그들의 문제이니 휴학이
면 등록거부된 명분은 새울수
있으며 私立大學에서 開學하
자 할 명분없는 것은 일반學
生들에게 납득이 가겠는가?」
라고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나
열에 있던 다른 學生들도 금
정적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금
정적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금
정적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금

날과 같은 방식의 회의를 되
풀어 했다. 추운 날여서, 창
문을 열수도 없었어 비침기가
말할수 없었다.
일부 學友들은 會議自體도反
對했고 同盟休學 같은 것은말
도 못할 분위기였으나 時間을
끌고 분위기의 전환을 기다렸
다가 야세 회의의대로 모인
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두가지방
향의 토론등으로 展開되었다.
「全體 社會의 각 학교가 <國
大案>을 반대하는데 어찌
리만 기반이 있었는가? 라는 우
情派들과
「남대는 한타해도 휴학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유화반대파가나

해방후 혼란된 사회에 던져
진 최대의 사회 문제인 國大
案이다. 많은 학생들의 意思를
부시하고 學校가 발전해 가는
에서 거역하고 長期休學에 들
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學團소동은 連日 계속
되었다. 그해 2월 8일까지
大學은 물론이고 中學校에이
르기까지 運動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學生들의 소동은모인
해서 <國大案> 문제가 사회적으
로 <國大案> 문제는 난관에
착하였다. 美軍政은 韓人일부
수정하여 理事會운영을 수정강
화했으며 理事會운영에 韓
國人총장을 임명했다.

부익 惠專 時節

金定奎

에는 학생단 모집해놓고 교수
도 교사도 없는 대학들도 있
었다. 저를 반학을 마치고 서
울에 모여는 학생들은 슬렁대
기 시작했다. 47년 1월말이었다.
이해 겨울은 예년보다 훨씬
추웠다. 이날은 늦까지 먼젓
술거리었다. 난안동 京東高級 校
문앞에 있는 나의 집에 10여
명의 學生들이 모였다. 얼굴을
저들보는 학생도 있었다. 각대

들었다.
「여러분! 그러한 걱정은 마
십시오. 오늘부터 전 左翼의 政
黨, 團體, 개인들도 이大學問題
를 갖고 호응을 주기로 되어
있으며, 교수들도 협조해줄터
니 우리는 <침전해결>에 담겨
나가기만 켜나. 이 회에서 디
욱 열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
서는 학생총회 소집의 의견조
성, 시간문제에서 토론방법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토의했
다.
후일에 알게 되었으나 이러
한 음모가 <남로당>중앙문화
부장 金台俊 (1949년 처형)에

었다. 그러나 血氣가 팔팔한대였
다. 회의주동자인 金振炳(학생
회장)보다 한술 앞서가는 주
장을 내놓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은 계획대로 준비회의는 끝
났다. 사회·학교측 교섭조건,
토의자등이 결정되었다.
다음날 47년 2월 6日 > 술영
이는 분위기에 긴장감을 느끼
면서 참석했다. 이미 이러한
동태를 탐지한 當局이었고 學
校측도 상당한 주의를 들었
다. 그러나 당시 학생許永錫

발생 많았던 <國立大學案>은
점차 해결의 길에 들어섰다.
세차례의 학생총회 논의시조
1~2개의 大學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은 복교하고 교실은 또
활짝 문이열리고 교수들이 마
침내 수속되었다.
이 <國大案>反對소동은 당
초에는 학계와 교육계에 어
리나만 최고학부원, 교수성과
독자성, 그리고 학문의 자유
등을 지키는 명분에서 일어
났던 운동이었지만 이력이
은 政黨인들이 자기들의 정
적적 목적을 달성코저 책동
했던 것이다.
1개월이 걸친 大學街의 소
동은 마음 내렸으나 많은 대
상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커
다한 反應과 미움을 받게 되
었다. 「혁명, 사회주의 사외로
간다는 학생의 美名과 학원일
서들송두리째 파괴했었다.」
당시 좌익진보파의 60%는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 <國大案反對 소동>의 결
과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추방되었다. 우리 東國에는 金
振炳이 한 사람만을 퇴학처분
시켰다. 그는 <남로당 새폭력
입자>였다는 것이다. 나머지
은당히 추방되었어야 마땅 하
였으나 이것도 학생許永錫
의 학문의 권리와 학생들의
희생을 이끼는 교육의 信譽에
서였다.
당시 外部로부터 훨씬 더
많은 學生들의 명단을 인수하여
學校에 넘겨주고 추방을 강
요했으나 許先生은 완강히거
주했다. 大學 校內안과 밖
에서 테러와 데모가 난무하
던 시기였고 이것을 概成政治人
들은 도구로 이용했었다.
그래서 「學生統一促進會」산하
의 學生들은 모두가 共產黨員
이란 인식을 받았기때문에 團
體이름을 바꿀 필요가있었다.
한편에는 「反託學生聯會」이
있고 學生들의 大衆을 이루고 있
기도 했었다.
당시 「民主學生聯盟」(民學
聯)이라는 새로운 組織을 한
학생단체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것이 1947년 5월말경이었다.
<學統>의 변신이었다고 그후 學
團에서의 유력처럼 반발 서울거
회에서 테러와 데모를 일으켰
던 것도 이 「民學聯」이었다.
학생운동이 극단적으로 行
動化 되면 폭력으로 변하고, 폭
력이 갖으면 理性을 잃어버리
고 자기를 모르는 것이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나 오
늘의 젊은 후배들이 간혹 폭
력과 혼란속에 비정상적인
학생운동을 전개했음에 거기에
는 의무적인 비학생운동이 개입
된다는것을 나의 경험을 통해
서 알리고자 한다. 쓸줄 모르
는 글로 이렇게 써 나가도
6.25 전쟁시가지의 「당시의
東國과 나」를 쓰자면 한 류
들의 책이 될것 같아서 이것
으로 끝내려고 한다.
1985년 5월
惠專年會 40주년을
回想하면서
〈 편집자註〉



◇1969년 6월 태화관에서 모임을 가진 우리 기법활영원한 惠門會동문들.

學에 다니는 左翼學生들이었다.
여기서 임시會議이 소집되었
다. 이날의 主人公은 서울大學
理工學部에 다니는 金紅峯이다.
그는 안을열었다. 流水같이 해
설과 설문을 했다.
『美軍政이 제기한 <國立大學>
안을 반대하라』는 것이었다.
그해 2월 3일과 4일에개하
는 『서울大學系別은 무기한 등
록거부와동맹휴학을 선언하라』
는 내용과 「私立大學에서도
개학이 되는대로 學生총회를열
고 동맹휴학을 단행하라」는
것이였다. 그와 동행해 와서
연애 있었던 李善賢이 보충
설명을 했으나 같은말이었다.

의해 꾸며지고 지시되었는거
이다.
회의는 일단 끝났으나 모두
들 눈앞에다 짐을 내려놓
지 않았다. 이날의 모임이 서
울시대의 빛개 大學을 수라장
으로 만든 집결이 되었다. 나
와 같이 이 모임에 參豫했던
은 級의 左翼小兒病者들 같
은 金振炳도 「다른 學校는 모
르나 우리 학교는 同盟休學까
지는 힘써야. 그러나 최후
까지 노력해야지」라고 했
다.
이러한 모임이 있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東國大學내부에
박혀있는 黨細胞員 30여명이

國大案 반대소동은 최고학부의 자주성과 독자성등을 지키려는 데서 일어난 운동이다

(許允) 선생님은 대학의 권위
와 學團의 민주화와 자유에 대
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신
념을 가지신 분이였다. 외부
의 壓力에 대해서는학생편에
서 自由를 주장해 주시던 분이
였다.
당시의 일부 극좌학생들은이
러한 어지신 종교인, 학장님을
역이용했던 것이다. 학생총회는
계획대로 소집되었고 金振炳의
사회로 회의는 진행되었으나,
회의도중 <國大案>전이 나오자
장내에는 폭풍이 몰아오듯 긴
장과 폭력과 아우성이 터져나
왔다. 그러나 회의는 多數의힘
으로 「동맹휴학」을 선포하고
끝났다.

國大案 반대소동은 최고학부의 자주성과 독자성등을 지키려는 데서 일어난 운동이다

5. 「國大案」 반대소동
을 끝으로 10이후부터 연
재되었던 金定奎(49여진)
동명의 「나의 惠專時節」
을 모두 마칩니다. 옥고
를주시 금동문께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註〉

會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년에 만원 ... 회보제작·장학기금·사무국 운영에요긴

- | | | | |
|------------------|-----------------|-----------------|-----------------|
| ◇常務理事會費 | ◇年會費 | ▲김영 (63경원) = 3 | ▲김영 (63경원) = 3 |
| ▲충남연 (57경원) = 20 | ▲박상기 (79원전) = 1 | ▲김영 (59경원) = 1 | ▲김영 (59경원) = 1 |
| ▲한민 | ▲민재우 (80원전) = 1 | ▲김부성 (83경원) = 1 | ▲김부성 (83경원) = 1 |
| ◇理事會費 | ▲최정호 (64경원) = 1 | ▲황지연 (83경원) = 1 | ▲황지연 (83경원) = 1 |
| ▲김영하 (58원지) = 5 | ▲김진재 (85원전) = 1 | ▲김병우 (69경원) = 1 | ▲김병우 (69경원) = 1 |
| ▲김영하 (79경원) = 1 | ▲최정호 (69경원) = 1 | ▲정종운 (70경원) = 1 | ▲정종운 (70경원) = 1 |
| ▲김영하 (80경원) = 1 | ▲최정호 (80경원) = 1 | ▲정희용 (68경원) = 1 | ▲정희용 (68경원) = 1 |
| ▲김영하 (84경원) = 1 | ▲최정호 (84경원) = 1 | ▲차재익 (66경원) = 2 | ▲차재익 (66경원) = 2 |
| ▲박원철 (69경원) = 1 | ▲최정호 (66경원) = 1 | ▲고훈동 (70원) = 1 | ▲고훈동 (70원) = 1 |

禪林院址 신라유물 발굴

모교 박물관 金銀銅佛像 등 최초로

모교 박물관 禪林院址 발굴 조사단(단장 崔世和교수)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강원도 양양일대의 禪林院址 발굴조사장 金銀銅佛像 1점과 金銅風鐸 1점, 鬼面기와를 비롯한 신라시대 유물 수종을 발굴해냈다.

禪林院址는 8백년전 창건되었다가 9세기 후반에 중창, 9백년전 대흥수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된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지방사찰로, 불교사적으로 해인사 창건과 같은 시대에 화엄종사찰로 창건되었다가 후에 선종으로 변종한 사찰이라는 것과 산사태로 매몰된채 손길이 닿지않아 戰禍를 입지않고 고스란히 유물이 보존되어 건축사상 신라의 건물 지붕형태를 복원할 수 있다는 점등에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출토된 유물중 金銀銅佛像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굴된 것으로 銅에 銀과 金을 도금한 특이한 양식에 왼쪽다리를 약간 옆으로 세워 조각을 표현하고 전체의 선이 육감적인점등으로 보아 인도 곁

金銀銅佛像 등 최초로



◇최초로 출토된 金銀銅佛像.



文明大교수

타라코미술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文明大(미술학)교수는 설명했다.

한편 불상과 함께 출토된 金銅風鐸은 지금까지 발굴된 신라유물중 최초로 것으로 도금상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옛도금색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完甁(23.7cm×23.6cm)은 출토된 甁面互를 비롯, 압, 수막새기와 껍새기와 등이 대량으로 발굴되어 당시의 건축술을 규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고있다.

한편, 현장지휘를 맡았던 文明大교수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발굴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학중 학생활동 활발 농촌활동·해외원정등

이번 하계방학중 모교에서는 외국어·컴퓨터등 각종 특강과 도서관등에서 면학에 힘쓰는 한편 농촌활동·작작교실·운동부 전지훈련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모교의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85학년도 하계 농촌활동이 지난 7월 4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원성·횡성군 일대에서 열렸다.

1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농촌활동은 도로정비, 김매기등의 근로봉사와 농민들의 사색을 위한 분말활동등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한편 경주캠퍼스 농촌봉사활동이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조경학과등 3개학과 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월성군 일대에서 펼쳐졌다.

농구부 日本원정 전승

재일본교인 日本大東文化大 초원으로 지난 7월 19일 渡口健 단 모교 농구부는 제5회 「韓日전선교류농구대회」를 가져 4전전승을 거두고 지난 7월 25일 귀국했다.

觀光文化생자상을 단장으로 사 詳篤체육부주임, 金聖德교지와 14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모교팀은 大東文化大와의 경기에서 88-59로 서전을 장식한데 이어 對明治大學전에서 65-46승, 마쓰다실업팀에 79

-60승, 對法政大學전에서 75-48로 승리할 기우이 전승을 기록했다.

야구부 韓·日 교환경기 韓·日대야구교 교환경기차 지난 5일 渡口健 단 모교야구부는 6전 2승 1무 3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지난 25일 귀국했다.

준제 대야구교 연맹회에서 우승을 차지, 이번 교환경기에 한국대표로 출전했던 모교야구부는 「대륙간컵 세계야구대회」에 출전한 백인호군을 주전 선수들이 백전백승을 벌였다.

각종고시 1차 합격

司試·行試·C P A 모교의 박유정(경의 4)군등 14명이 제 27회 사법고시 1차시험에 합격한 것을 비롯, 제 29회 영정고시 1차시험에 전운배(경의 4)군등 3명이, 제 21회 공인회계사(C P A) 1차시험에 박인호(회계 4)군등 12명이 각각 합격하였다.

또한 이세환(법학 4)군이 법원사무관 최종시험에, 백성길(법학 4)군은 군법무관 1차시험에 각각 합격하였다. 합격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법고시

이광복(85법학) 송인만(85법학) 조규재(84법학) 이명복(84법학) 유해정(84법학) 최현규(84법학) 계승환(84법학) 박승만(84경역) 맹일찬(83법학) 도중철(84법학) 이원재(85법학) 김두식 이은기 박우경(경의 4)

◇행정고시

이재복(85경역) 정영찬(85경역) 전운배(경의 4)

◇공인회계사

남일우(85회계) 오경진(85경역) 구제영(81경역) 이광재(81경역) 이원철(대원재) 정승재(大原재) 바이철(대원재) 이범구(경의 4) 김성구(경의 4) 이경태(회계 4) 박진수(회계 4) 박건순(회계 4)

도서관장에 朱宗桓교수 법경대학장 朴準鶴교수

모교 당국은 지난 19일자로 신임도서관장에 朱宗桓(농업경제학과) 교수, 경주캠퍼스 법경대학장에 朴準鶴(행정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朱도서관장과 朴학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朱宗桓도서관장—29년 전북 부안출, 48년 서울대문리대수, 52년 일본 동경대학 경제학부수, 54년 모교대학원수, 74년 모교대학원 경제학박사, 농업정책심의위원, 한국농경제학회이사역임.

▲朴準鶴경주캠퍼스 법경대학장

정—01년 충남대전주출, 69년 모교법대수, 65년 서울대행정대학원수, 71년 모교대학원 행정학박사, 모교및 서울을시立대강사, 모교 경주캠퍼스 부교수.

후기 학위 수여식 박사학위 수여자

- ▲李鍾建(문학박사) 「徐居正 語文學연구」 현재 창원대학 조교수
- ▲尹光鳳(〃) 「韓國演說詩 연구」 현재 제주대학 조교수
- ▲金秉玉(〃) 「Coleridge의 言語와 詩의 理論研究」 현재 인하대학교수, 한국 영문학회 상임이사
- ▲成炳錫(〃) 「百濟城址研究」 현재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소장
- ▲徐炳國(〃) 「遼의 漢族 統治에 관한 研究」 84년 수원 대학부교수
- ▲宋在堯(철학박사) 「王陽明心學의 研究」 현재 인천대학 교수
- ▲洪裕頤(법학박사) 「어을 抄錄에 관한 研究」 85년 서울신 대학원 연구원 교수
- ▲李炳泰(〃) 「株式會社理事의 地位와 社會에 대한 責任」 85년 한양대 교수
- ▲余千(〃) 「北魏刑法에 관한 研究」 75년 모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黃振波(정치외교박사) 「韓國老人福祉政策의 評價에 관한 研究」 현재 한성대학 조교수
- ▲朴鍾勳(〃) 「Edmund Burke의 政治哲學에 관한 研究」 85년 부산수산대학 조교수
- ▲崔武鍾(행정학박사) 「儒 基礎豫算制度의 特性과 適用에 관한 分析」
- ▲金高旭(경제학박사) 「韓

- 國海外直接投資에 관한 研究」 현재 오대대학 겸사
- ▲金鎬秀(경영학박사) 「證券投資信託의 成課測定에 관한 研究」 현재 인하대 교수
- ▲崔洪守(의학박사) 「光子 및 荷電粒子를 照射시킨 α-A1₂O₃의 熱輻射發光」 현재 경상대 교수
- ▲吳濟直(〃) 「아린화원 연구」 현재 바다공성陰이온 교환수지의 선별과 불소동위원소분리에 관한 연구」 현재 공주소재 조교수
- ▲李度鉉(농학박사) 「무우의 雄性不稔性和 이를 이용한 F₂종자생산에 관한연구」
- ▲甲鉉成(이학박사) 「人夢論의 환경요인과 토양미생물분포에 관한연구」 현재 대한인삼방역사협회 총합도회장
- ▲金甫弼(〃) 「솔잎혹파리 해충의 절지동물군집의 구조에 관한 연구」 83년 모교 경주캠퍼스교수
- ▲金益株(공학박사) 「能動-R 波渡器의 효과적 인 실현방법」 82년 모교 전자계산원 전임강사
- ▲金一(〃) 「Caulliflor Carboxypeptidase의 특성」에 관한 연구」 현재 단국대교수
- ▲張鶴吉(〃) 「韓國産 소맥의 가공특성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 현재 세종대 식품공학과 강사

洞探部 日本원정 탐험

모교 동굴탐험연구회(회장=이수홍·산공 3)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카이시타이(秋吉山), 시코쿠(西國) 등지에서 가진 일본원정 동굴탐험을 마치고 귀국했다.

동굴탐험의 이번 원정은 해외 진출 탐험의 기본적역할구축, 일본 관광공업의 보존실태 조사 및 비교, 정보교류, 關西學院大學, 京都産業人 등과의 친교도 모 등을 목적으로 秋芳洞(총 길이 4.1km) 大正洞(3.7km) 龍河洞(4.5km) 京洞(2.8km) 등 4개 동굴과 비공개 수직동굴(아진도수직굴등) 3개를 탐험하였다.

특히 京洞과 水路로 유명한

龍河洞을 탐험할 때에는 「韓·日승동굴탐험회」이라는 기사로 시코쿠(西國)新聞과 NHK TV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대개 비장개굴은 수직과 폭포가 많으며 특히 龍河洞지굴은 9m폭포위에 계속 전개되는 수로를 탐험하고 그폭포를 거슬러올라간 경우는 초탐이래 동반탐험가 두명째라고 한다.

동굴탐험 연구회는 1969년 창립이래 국내외 3백여 동굴을 탐험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남한강 유역의 접근이 어려운 동굴들을 몇곳을 타고 내려오며 탐사하기도 했었다.

東友會報는 東國人的의 광고를 기다립니다

편집인 사단국 267 5668 274 7449

꽃배달 FLOWERS BY PHONE

전화 한 통화로 축하의 기쁨과 만족의 꽃이 됩니다.

777-5040

꽃배달·신부코너
보보의꽃방
중구 소공동1번지 롯데호텔입구

새로 발굴된 東國人입니다. 「東國」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 ▲黃雲霞 (48분화) = 국보산업공사 대표 (886) 7777
- ▲具榮壽 (48분화) = 대한화학해상보험 용비대리점 (392) 5013-4
- ▲柳時京 (53국문포) = 반도조선아카데미 드이하13호 중앙화원 (757) 3321
- ▲鄭淨泰 (59년) = 서울지검기록관리과장 (771) 23호445
- ▲尹大欽 (61경치) = 백만사대부 (266) 8304
- ▲朴在出 (62경치) = 은평구응암2동 298-4호 (302) 3616
- ▲宋靜錫 (62경제) = 조흥은행업무개발선과장 (735) 7451~9호2304
- ▲康明彥 (62경제) = 동대문구녹동 174-31
- ▲金錫鎬 (62경제) = 용산구갈월동 7-51
- ▲金成錄 (62경제) = 성동구중곡동340-44
- ▲朴大永 (62경제) = 중구 관회동 2가 250-2
- ▲李鎔汰 (62경제) = 동대문구이문 2동 264-246
- ▲석진국 (62경제) = 동대문구면목 6동54-2 현대파크302호
- ▲鄭明得 (62경제) = 강서구화곡3동 주공시범아파트27-404 (602) 2350-62경제 동기회총무
- ▲金錫燦 (62년) = 대우통신이사 (752) 2294
- ▲尹濟一 (63국문) = 성동구성수동 2-269 (464) 0675
- ▲金文植 (63경치) = 영진상사대표 032 (83) 4767
- ▲朴海光 (63년) = 영동플러스리공업 (주) (776) 1351
- ▲尹榮泰 (63년) = 범야동상 (797) 3241
- ▲白鶴鉉 (63경제) = 성북구성북1동 178-28
- ▲林連株 (63경제) = 성북구동소문동 2가 29 삼선상가아파트 320호
- ▲구자경 (63년) = 중구 명동 2가 31-1 제일빌딩10층 신한증권 (주) 영업부장 (777) 1851-5
- ▲徐正部 (64행정) = 대구시수성구 황금동746-1
- ▲權丙燮 (64경제) = 도봉구삼문 3동88-28
- ▲金起淵 (64경정) = 청마어영

- 사이사 (792) 6649
- ▲金鎭權 (64경정) = 현대수화연구회 회장 (414) 8511~3
- ▲金光 (64경정) = 고려증권충무구지점 검사실부장 (776) 5097
- ▲文龍吉 (64경정) = 경향신문사 영업차장
- ▲金洛賢 (65경정) = 태광개발대표 (798) 3511-4
- ▲黃萬重 (65경정) = 제일화재보험 삼구대리점 대표 (753) 7085
- ▲金植植 (66시공) = 강남구신사동 663-6
- ▲金彥三 (66시공) = 주원농산공장장 (542) 1811
- ▲賈在煥 (66경제) = 인천전문대 실업부사 인턴 (4) 5021
- ▲李武雄 (67분교) = 종로구송인동 178-3 묘각사 (763) 3345, 3109
- ▲申龍善 (68국문) = 신민당원내총무실 전문위원
- ▲金文文 (68년) = 한남무늬복 (293) 0981
- ▲姜錫求 (69년) = 향수화원대표 (412) 3635
- ▲李吉祐 (69행정) = 유종실업(주) 이사 (856) 0900-3
- ▲南在祐 (69경정) = 남영나이론 (주) 총무부장
- ▲鄭錫云 (70행정) = 구로구개봉 2동407-11 원종아파트 7동 108호 신한증권 증부지점
- ▲徐秀一 (71년) = 은행감독원 (783) 0975 호6117
- ▲安春泰 (71년) = 일신교회목사 (793) 6142
- ▲鄭雲龍 (71경제) = 대우증권(주) 태평로지점차장 (779) 0151-5
- ▲金鴻仁 (72상) = 한국바이린영업부차장
- ▲金貴植 (72화화) = 한국건설(주) 영업관리부차장 (776) 8011
- ▲李相律 (72경제) = 동방생명기획과장 (7518) 000
- ▲김요중 (73경정) = 신성고교 제작소 상무 (267) 9680~1
- ▲한성곤 (73경문) = 성북구동선동 2가258번지 성북서 정보과 경위 (95) 0330
- ▲李世雨 (73농화) = 도서출판백민 대표 (742) 6211
- ▲高時福 (73경정) = 진철화학

- 공업 (주) 자재과장 안양 (51) 3611~7
- ▲金瑞卿 (73국문) = 개포동주공아파트 218동301호 (566) 8033
- ▲朴秉用 (74경제) = 한국산업은행 의자부대리 (779) 2931
- ▲李仁植 (74경제) = 럭킴금점상사 (주) 심사 1과장 (757) 1234
- ▲金相國 (74행정) = 수광산업(주) 사무사 장원 (83) 0500~2
- ▲文得珍 (76경정) = 동작구사당 4동1000-1 (584) 9429
- ▲이호신 (76경정) = 강남구우삼동635-4 과학기술회관409호 삼라상사(주) 부장
- ▲尹錫錫 (76경정) = 1833 Centerwood Dr. Olympia. Wa. 98501 (206) 352-1431
- ▲金旺植 (76경제) = 올림피아오일 부사장 (353) 5121~7
- ▲安勝波 (77경제) = 코오롱상사 북재자재부대리 (776) 1683
- ▲秋淵浩 (77수화) = 선광상사 (주) 부사장 (782) 6091~6

新지안내

「국제자원연구」

朴寅泰(61경제·효성여대 교수) 등은 최근 「국제자원연구」를 출간했다.

朴寅泰(61경제·효성여대 교수) 등은 최근 「국제자원연구」를 출간했다.朴寅泰(61경제·효성여대 교수) 등은 최근 「국제자원연구」를 출간했다.朴寅泰(61경제·효성여대 교수) 등은 최근 「국제자원연구」를 출간했다.

「鄉歌研究」

崔鶴堯(61경제·효성여대 교수) 등은 최근 「鄉歌研究」를 출간했다.

등문이 「鄉歌研究」를 펴냈다.崔鶴堯(61경제·효성여대 교수) 등은 최근 「국제자원연구」를 출간했다.朴寅泰(61경제·효성여대 교수) 등은 최근 「국제자원연구」를 출간했다.

「不動產公法」

李敦熙(69·상학) 등은 최근 「不動產公法」를 출간했다.

토지평가사이며,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재직중인 李敦熙(69·상학) 등은 최근 「不動產公法」를 출간했다.이론과 실무를 겸한 李敦熙(69·상학) 등은 최근 「不動產公法」를 출간했다.

감사·약속·부탁드립니다.

코끼리대, 연락주세요

○...우리 동문들의 현황과 안나, 경조사 잡어는 본회 사무국의 의무 업무이지만, 식원이라봐야 땀땀인 일정이라 6만동문여러분을 상대하기에는 어차피 코끼리에 비스켓.

그래도 본회 직원들은 파악되는 즉시 전화·서신등을 통한, 연락을 드리려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모는중문들께 연락드리지 못하는점엔 정말 한없이 죄송.

반면에 金泰益전총장님같이 꺾박고박 자필부주소이전엽서를 적어보내주시거나 姜秉國(동립산업이사) 동문같이매년 안부서신을 주시는분, 李鍾國(치안본부 이사과장) 동문같이 생일기드 답장을 주시는등 자상하고 성의있는 분들이 있을때 동회사무국의 사기는 충진.

다시 한번 금전총장님, 姜·李동문께 감사드리고, 더욱 매진할것 약속드리고 동시에 여러 동문에게도 자주주 연락주시기를 부탁.

어느同門의 선물, 살맛

○...무런히도 더웠던 올여름. 참문을 모조리 열어드리고

하나뿐인 선공기로 더위를 견디던 동창회 사무실에도 이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여름내 더위에 시달렸던 사무국직원들은 오늘 정말 사기 울려주는 「살맛나는날」이 있었다고 싱글벙글.

모교 최고참 선배들의 모임인 惠門會의 金鍾錄(48 회



東同國대동창회동물지인

전)회장이 난데없이 격려전화와 더불어 반강제로 전직인을 초대했던 것.

예의 그 인자한 웃음만으로도 후배직원들은 사기배배인데, 한사람 한사람 약속을 하며 격려해주고, 「결격한」점심으로 후대.

선배의 따스한 정에 감격하고 부침된 더위와 미곡수로 포식한 나머지, 「동동동」이 「통통통」이 되는데 아아 너무나 허리미 늦춘 직원들

은 이주풍성으로 가되나, 「이렇게 따스한 東國愛」가 있는 한, 모교와 동창회의 앞날은 밝기만 하다가며 용심저사할 것을 재대지.

여타 支會에 경중

○...각급 단위별 東友會가 활성화를 위해 애를 쓰고있는 가운데, 근래 들어 새로이 막내 東友會들이 결성되고있어 본회직원들은 「가름에단비」를 만난듯 靑色滿面.

경주팬페스 졸업생들의 한의학과동우회가 대구에서, 國史學科동우회가 광주에서 각각 창립총회를 갖고 결성된 것이 그것.

한의학과와 국사학과의 동우회 결성은 제 1기생들의 첫모임이라 더욱 뜻깊은 것이고,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여타동문회에겐 하나의 감동이 될수 있겠다. 하겠는데 두 동문회 관계자들이 「앞으로 최고의 支會가 되도록 계속과 활동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라고 기입.

한편 한의학과 동문회는 그 제일보를 내딛음에 이구런 격이건이 모범을 보여 흥업정기이 동경자동문과 지난 4월 결혼, 내일의 발전을 화려하게 예고.

떡잎보니 내일의 최고 支會

주식회사 매일항공 AIR CARGO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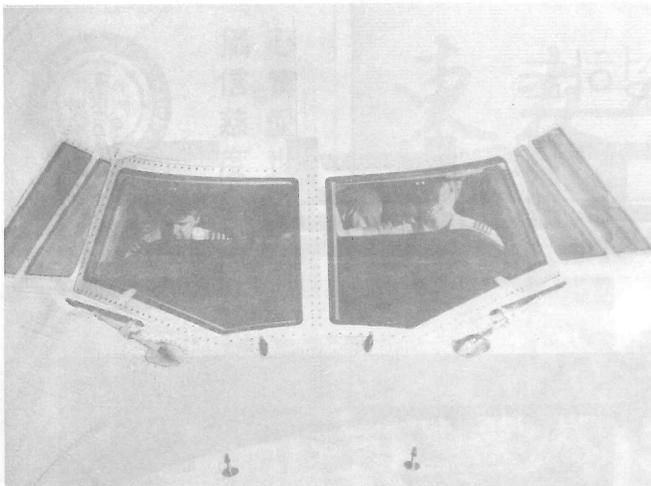


항공 화물

매일 매일
이 세상 끝까지
신속·정확·안전·친절하게
도착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李永泰
영업부장: 李松林(69정의)

서울市 鐘路區 寬政洞198-16 南都빌딩 1層
TEL: (代) 734-2020~7
TELEX: K23724 SUNYT
光化門私書函 676



6월 6일부터, 미국 3대도시로 논스톱항공편 운항

단지
미국 335명*로
미국 7개도시를 주가10월
*미국 내외의 단지 7개만 한정

미국으로 여행하실때 노스웨스트 항공을 타시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 노스웨스트 항공편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그리고 세애틀 등 미국의 3대 도시로의 논스톱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도착 즉시 미국과 캐나다의 50여개 도시로 곧바로 모셔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기내서비스와 요금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즉, 한국인 여승무원의 친절한 서비스와 더불어 이코노미 요금으로 익세컨더리 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귀리에 따라 무료여행의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미국여행은 편리한 노스웨스트 항공을 이용하십시오. 가장 많은 혜택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3:40pm	10:40am	로스앤젤레스
1:45pm	12:15pm	시카고
4:15pm	10:00am	세애틀
	4:00pm	뉴욕
11:50am	1:30pm	샌프란시스코
	9:00am	호놀룰루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요리센터로 예약하십시오.
●주인호텔 (서울) 753-6106/9, 755-0416/7, 777-9786
●파티호텔 (서울) 1778-8240/1 ●파티호텔 (서울) 752-2294/5
●주인호텔 (서울) 778-0181/7 ●연도호텔 (부산) (051) 44-2240

이제부터 노스웨스트오리엔트입니다.



鄭飛石長篇小說

小說 孫子兵法

春秋戰國時代, 그 난세의영웅 호걸들이
다채롭게 펼쳐는 장엄무쌍의 일진일퇴!
한국 소설 문단의 거匠 鄭飛石이
성공의 지혜를 실과한 현대인의 성전!

천하명장 孫臏과 그의 손자 孫臏, 세세의
호걸 오자서와 경국지색 서시, 와신상담으로
야망과 복수의 칼을 가는 5대16국의 제왕들 그 회대의
영웅 미녀들이여여가는 흥망성쇠와 이합집산의 드라마를
통해 인간사의 철리를 새삼 깨우쳐 주는 감동적인 소설.

孫子兵法는 단순한 兵書가 아니다!
케케묵은 옛날이야기도 아니다!
차원높은 처세의 비법을 깨우쳐 줄
재미있고 유익한 小說 孫子兵法!
소설 손자병법은 합리적인 기업경영 원만한
인간관계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세상의
철리를 터득하여 성공의 지름길을 찾고자 하시는
바로 당신이 읽으셔야 할 현대인의 성전입니다.

전3권 /각권 각300면내외/각권 값2,8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小說 三國志

*男子가 뜻을 세우고, 여자가 상을 얻을가 막힌 妙案이
곳곳에 도사려 있는 小說 孫子兵法의 作家 鄭飛石 小三國志!
소설삼국지는 해·월·삼국의 흥망
성쇠의 역사를 배경으로 魏·蜀·吳의
그 갈등 격렬한 대립의 무중을 극화시켜
그 時代 영웅로건들의 모습을 생생하고
도생생하게 그려 낸 실로 괴판 만장천
시작이다.
전6권/각권 각340면 내외/각권 값2,8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날권판매! ① 桃園結義 ② 天下分立 ③ 赤壁大戰 ④ 三國鼎立 ⑤ 孔明出陣 ⑥ 大星歸天



小說 楚漢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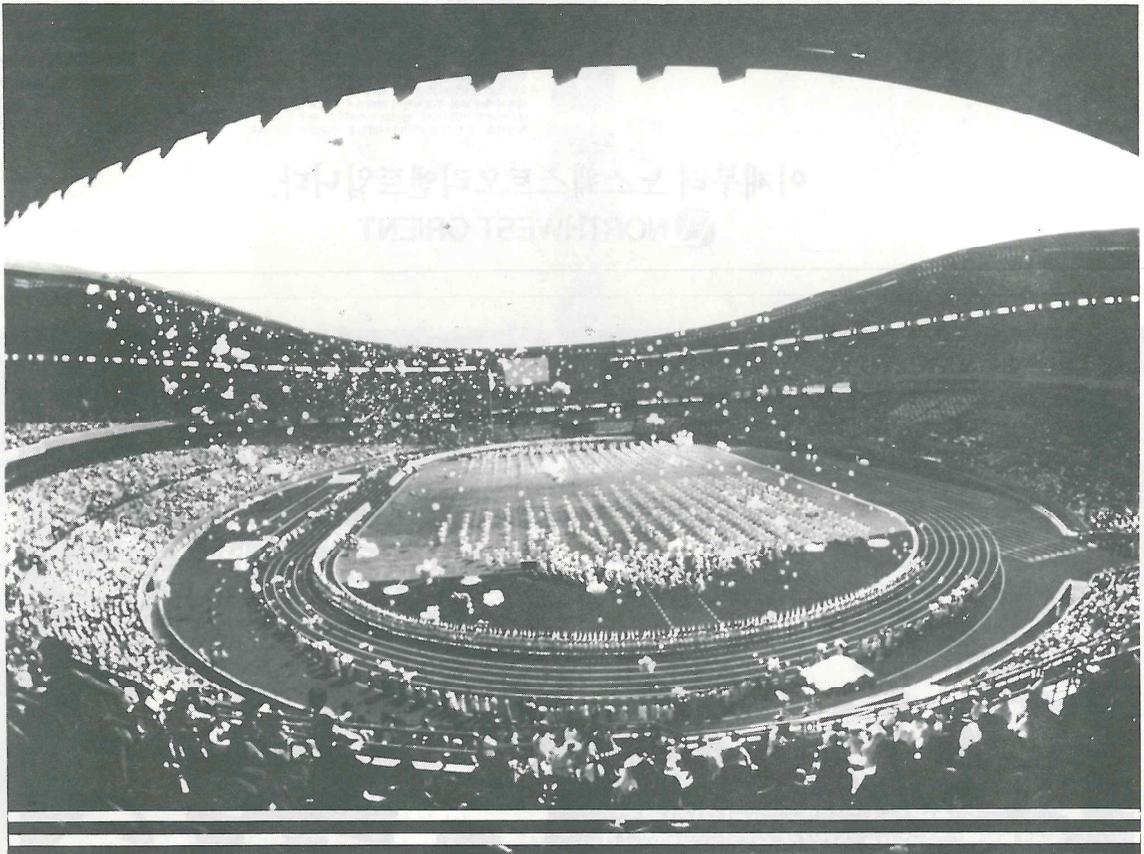
*鄭飛石이 내놓은 또 하나의 인생 교과서! 지혜로운 삶을 위해 현대인이
읽어 써야 할 성공의 지혜가 넘치는 장엄하고 웅대한 대하소설 小說 楚漢誌!
진시황이 사방으로 뻗어가는 데서부터 문을 일으킨 小說 * 폭발적인 화제속에 小說 楚漢誌
한때는 孫子의 兵法를 살건에 한 小波瀾 / 兵法의 妙案 재기전 高里成 卷2권 群臣爭權에
관여하는 孫子의 통일천하와 항오의 그걸을 한때는 李이 재기전 風雲變化 出陣
소설로 그 時代 영웅로건들이 엮는 괴판만장천 楚漢誌 前5권 / 각권 각 300면 내외
통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智慧를 새삼 터득하게 하는 楚漢誌 前5권 / 각권 값 2,8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또는 天開 卷제해 저서!

*기꺼운 서점에 책이 없으면 책값을 우편 소액현으로 교환 (서울 중앙 서서함 6622호
고려워/기회부)으로 책값을 적어들이기 우송하십시오. 송료 분담, 무송하여 드립니다.

고려워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2
서울 중앙서서함 제 6622 호
영업부 : (744) 7741 ~ 3
편집부 : (730) 8082 ~ 4

올림픽과 주택기금을 조성하는

올림 픽 복권



'86,'88양대회의 입장권을 드립니다.

- 입장권의 종류: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대회 개·폐회식과 각종 경기의 입장권
- 증 정 대 상: 기존의 올림픽 복권 수집자와 제125회 신규 수집자를 대상으로 하며 86년 사은 행사부터 추첨에 의해 결정.
- 증 정 방 법: 매년 사은행사시 입장권 교환증 증정 양대회 입장권 판매시 교환증과 입장권을 교환.

※ 주택은행의 무지개 종합통장을 가지신 분이나 우편구입을 희망하시는분 (매회 4매이상, 4회 이상)께서 가까운 주택은행에 신청하시면 복권을 택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 1983 SLOOC All rights reserved. TM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한국주택은행